

# 이탈리아, 유럽인의 영원한 이상향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을 읽고

박철화 | 문학평론가

헬레니즘 문화를 부활시킨 르네상스의 나라 이탈리아. 기독교 전통과는 달리 감각적이고 쾌락적이면서 그 정체가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 신비까지 겹쳐 이탈리아는 아직도 서구인들에게 영원한 '동경'의 대상이다. 서구문화의 변방이었던 독일과 러시아의 문호들에게 이탈리아는 한번쯤 반드시 거쳐야 할 '순례의 메카'였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서양 문화의 두 근원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다. 그리스·로마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전통은 서구인들의 일상 곳곳에 스며 그것을 살아가는 존재의 안과 밖을 이룬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모두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다. 오늘날 유럽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쇠퇴 현상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다른 지역의 융성을 염두에 두면 그 보편화가 쉽사리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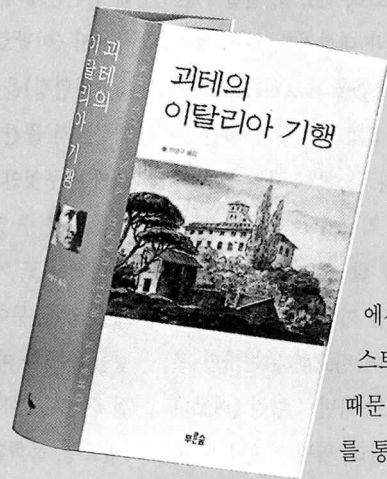
## “로마를 맨 마지막에 가라”

문제는 그리스·로마 문화의 전통이다. 이것을 역사의 한 시기에 변성하고 끝난 물질문화에 국한시켜 봐야 할지, 아니면 내면화된 또 다른 정신 문화의 전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없지 않다. 그것은 '중세'라는, 아직 정체가 잘 규명되지 않은 '괴물'과 엮물려 있기 때문이다. 과연 르네상스는 말 그대로 그리스·로마문화의 재생인가? 현상적으로는 그러하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쉽사리 단언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정체가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 신비까지 겹쳐 이탈리아는 아직도 서구인들에게 영원한 '동경'의 대상이다.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를 맨 마지막에 가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우선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양 물질문화의 대부분이 강성대국 로마의 영향 아래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

이다.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로마 토목·건축물들의 흔적을 보면 쉽게 수궁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서구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신의 자유로움에 있을 것이다. 경건하고, 엄격하며, 내세지향적인데다 금욕적이기까지 한 기독교 문화 전통과는 달리, 현실적이고 냉철하면서도 감각적이며 쾌락을 추구한 로마인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감춰진 일면을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그 자유로움이 이탈리아만의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의 카사노바, 스페인의 돈 후안, 프랑스의 사드에서처럼 그것은 라틴 문화 전체의 특성이겠으나, 그래도 그 대표성은 단연 이탈리아에 있다고 봐야 한다.

사실 독일 낭만주의 이후 '동경'은 서구의 문예를 이끌어온 가장 주요한 정신적 동력이다. 그리고 '지금·여기'를 벗어나고자 한 문학 예술인들의 동경은 지리적으로는 로마를 향했다. 그 찬란한 햇살이며,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로 뒤덮인 구릉이 모두 서구인들에게는 이상향(理想郷)의 한 자락으로 비친 것이다. 거기에다 잃어버린 고향으로서 이탈리아의 이미지까지 섞이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향수의 대상이 된다. 잃어버린 고향? 그렇다 '팍스 로마나' 이후에도 계속된 바티칸의 로마와, 도시 국가들의 융성과 함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상징되는 르네상스의 이탈리아가 있었으나, 적어도 그 이후 서구 역사



박영구 옮김  
푸른숲/B6변형/718면/15,000원

에서 주도권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통해 근대국가의 기틀을 다진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그

에 뒤이은 '프랑스 대혁명'의 17~18세기 내내 이탈리아는 서서히 프랑스의 이름 아래 잊혀져 가는 고장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서구의 많은 문학 예술인들은 마치 실향민처럼 자신들의 잃어버린 정신적 고향 이탈리아를 그리워하게 된다.

## 문예인들의 정신적 고향

그런 향수는 독일 낭만주의에 가장 강하게 남아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서구 문화의 변방이었던 독일로서는 자신의 기원인 이탈리아로 귀향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괴테, 박영구, 푸른숲)은 그런 문화적 지향의 상징적 표출이자, 독일이 서구 문화의 중심으로 편입해 들어가는 출발점이라 말할 수 있다. 《이탈리아 이야기》(막심 고리키, 신윤근, 열린책들)에서 엿볼 수 있듯 러시아의 상당수 문예 지식인들의 이탈리아 동경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거기에는 주변국가의 문화적 콤플렉스가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독일이나 러시아 같은 후발국가들만의 현상은 아니어서, 옛 식민종주국을 누르고 새로운 패권국이 된 프랑스의 경우도 《적과 흑》의 작가 스탕달의 예에서 보듯 마찬가지다.

그런데 로마에 대한 동경이 흘러간 과거 속의 일이기만 하다면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겠는가. 문제는 그것이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다. 20세기에도 우리는 토마스 만, 유르스나르 등등 적지 않은 이탈리아 체류의 기록을 만날 수 있다. 서구의 문학 예술인들에게 이탈리아는 누구나 한번은 거쳐야 하는 '순례의 메카'인 것이다. ●